

“범안로 무료화 추후 재검토”

대구시, 상인~범물 순환도로 완공 이후 추진여부 결정 방침

시의회 질의·답변

대구시가 한 때 범안(범물~안심간 7.25km)로의 무료화를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대구시는 12일 “대구시가 범안로 전구간 운영권을 사들일지, 혹은 1개구간(2개 요금소 중 1개소)을 사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한 적이 있다”면서 “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현행

대로 유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 성 대구시 도로과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이경호의원의 ‘범안로 무료화 방안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.

대구시는 무료화여부를 상인범물간 순환도로가 완공되는 시점 이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.

무료화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로

전 구간 운영권을 넘겨받는다는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.

상인범물 도로 개통이후에도 범안로의 교통량이 당초 예상 5만8천대의 70%이하를 밀돌 경우, 무료화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.

범안로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5만8천여대의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

전망했으나 지난해 연말 당초의 47%인 2만7천400여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.

한편 대구시는 범안로 민간사업자에게 2004년 121억원, 2005년 60억원의 운영적자분을 지원해 줬으며 올해도 85억원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.

박무환기자
pmang@kyongbuk.co.kr